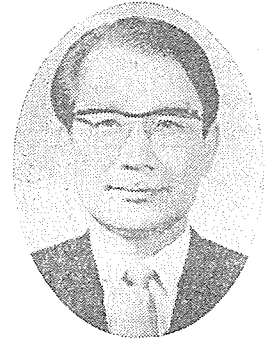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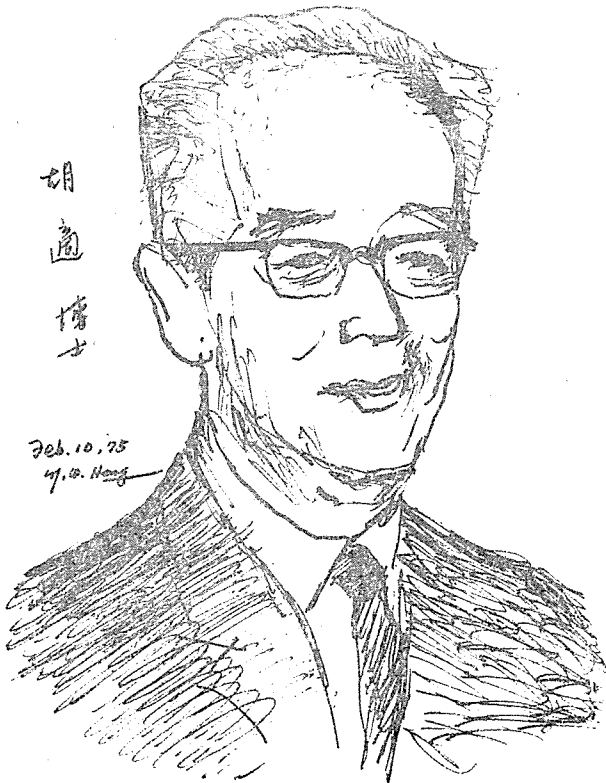


# 中國近代化運動의 旗手 胡適 博士



洪 文 和 博 士

서울대 生藥研究所 教授



<컷·筆者가 직접 스케치한 中國近代化 運動의 旗手인 胡適博士>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문약에 흐르면 국운이 쇠하고 實學精神이 팽배하면 융성해진다 함은 부동의 철칙이다. 그 예를 구태어 떨리서 찾을 필요 없이 중국이 그 광대한 국토와 세계 총인구의 수분의一을 차지하는 인적자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근대공업국가로서의 정상적인 발전을 하지 못한 이유는 實學崇尙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왜소한 섬나라에 불과하지만 1세기만에 그토록 빛나는 발전을 이룩하였음은 소위 明治維新을 계기로 하여 歐美式 實學精神을 대담하게 도입하여 庶政을一新한데 있었다고 보아야겠다.

중화민국의 國父인 孫文이 1920년에 「學問知識之外常注意於雙手萬能力求實用」을 국민에게 절규하였건만 별반 실효를 거두지 못한채 드디어 大陸失地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 —手腦並用운동 全國에 계몽展開—

그러나 臺灣에서 「勿忘在莒」를 부르 짓으면서 臥薪嘗膽하는 자유중국은 아연 각성하여 문교정책의 중점을 과학교육과 실업교육에 두어 오늘날 대만으로 하여금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하였다.

필자가 이미 1961년에 대만에서 열렸던 「東南亞地域科學教育會議」에 참석하였을때 강렬한 인상을 받은 것은 街頭處處에 大書되어 있는 슬로우전 「手腦並用」이라는 벽 자이다. 머리와 손을 함께 움직이자는 것이다. 머리속에서 관념적인 철학만 할것이 아니라 실제 손을 움직여 물건을 만들어 내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십지어는 국민학교의 校舍壁에도 「多多的 懷疑, 細細的 觀察, 大膽的 假說, 小心的 求證」이라는 표어가 붙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科學的 思考方式의 四段階를 간명하게 표현한 것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과학적 사고방식을 배양하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엿볼수 있다.

이 회의에서 또 하나 평생토록 잊을수없는 감명을 받은 것은 1주일간에 걸쳐서 열린 회의의 개회벽두에 胡適博士의 基調演說이었다. 胡適博士라고 하면 세삼 말할나위도 없이 세계 최고 지성의 한분이며 중국의 近代化운동의 旗手이었고, 그때는 중국 학술원 원장이 었다.

기조연설의 제목은 Social changes Necessary for the Growth of Science (科學發展에 필요한 社會改革)이 었으며 그가 數10年間 주장해온 東西文化觀을 집약한 것이라고 할 수있는 것이었다. 近代化의 頂上을 향하여 수레를 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傳統의 짐을 되도록 버리고 훌가분 해야 한다는 그의 持論을 力說하였던 것이

다. 그는 입을 열자마자 「동양의 정신문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逆說的으로 절규하여 우선 청중을 놀라게 하였다.

『중국의 여성들을 閹房에 가두어 두기 위하여 婦女纏足같은 그런 비참한 비인도적인 습관을 천년동안이나 용인해오면서도 거의 한마디의 항의도 없는 그런 문명이 과연 동양의 정신문명의 所産이란 말인가.

소인노파가 가두에 쓰러져서 열불을 외우며 극락왕생만 원하면 그것이 정신문명인가. 물질문명과 唯物사상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할것이지만 物質文明과 精神文明은 결코 異質的인것이 아니라 정신문명이 건전하려면 풍요한 물질문명의 외모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동양인은 古來로 물질은 천하고 정신만이 귀한 것이라는 정신과 물질을 대립시키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지녀왔다, 따라서 人文學은 尊待되고 技術은 賤視되어 왔다. 이러한 사고 방식이 사회에서 불식되지 않는한 과학과 기술은 발전 될수 없고 동양의 빈곤과 후진성은 결코 극복될수 없다...』는 것이다

胡適박사의 음성을 들은지 이미 15년이 되지만 그의 외침이 아직도 필자의 귓전에 생생하게 살아있음은 무엇때문일까.

그는 이 강연을 남기고 그로부터 석달후인 1962년 2월에 세상을 떠나고 그와 악수를 나누면서 같이 찍은 한장의 사진이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기념물의 하나로 되어있다.

바로 지난 12월에 제 5차 아시아藥學會議가 臺北에서 열려 필자는 그 의장직을 맡아보기 위하여 약 2주간 대만을 다녀왔다. 국제정치 사회에서 고립되다 싫이한 자유중국이지만 「莊敬不息,

## —四段階로 科學的 思考方式 培養—

## —新文化運動의 先覺的 實學精神—

處變不驚]하는 태도로 보다더 발전되고 있는 대만의 모습을 보고 새삼 大國의 도량을 느낄수있었으며 이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新文化運動의 先覺者이었던 胡適 같은 분들의 實學精神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아니 할수 없다.

필자의 전공인 藥學界만 보더라도 대만 특유의 약용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底力이 대단하며 漢方藥의 科學化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우리도 본받아야 할점이 많음을 느꼈다.

약학교육제도 4년制의 약학대학과 3년制의 약학전문학교의 두가지가있어 대학은 주로 약학연구의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고 약학전문은 실무에 종사할 약학기술자를 양성하는데 중점을두고 있다.

전문학교중에서 私立嘉南藥專科學校를 시찰할 기회를 가졌는데 이 학교야말로 약학교육의 하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세계제일의 학교가 아닐까하고 경탄과 기쁨을 금할수 없었다. 臺南市에서 약 6km 떨어진 臺南縣仁德鄉保安村車路墘 27號之1에 所在하고 있는 약학전문학교로서 고등학교 졸업생이 입학하여 3年間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졸업생이 입학하여 6年間을 修學하게 되어 있다.

이러하면 3년制가 아니라 6년制라고 할 수 있다. 어린 少年들을 6年間에 걸쳐서 처음부터 훌륭한 약학기술자, 쓸모있는 藥師를 양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학교가 바로 이곳이다. 藥學科와 保健藥學科의 2科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학교

를 나온 藥師들은 제약회사나 위생시험소 같은 데서 제가꿈 풀어가는 바람에 언제나 數가 모자란다고 하는것도 결코 과장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시찰하면서 실감할 수 있었다.

학교 전체가 하나의 완벽한 제약공장으로 되어있어 학생들은 말하자면 제약공장에 근무하면서 공부하는 형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처방조제는 말할나위도 없고 미생물배양, 생약으로 부터의 유효성분 추출, 합성 및 精製, 錠劑, 軟膏劑, 注射劑, 液劑, 糖衣錠劑등의 제조등을 비롯하여 항생물질 약품의 充填施設, 제품의 품질관리 시험실의 완비등이 되어있어 자칫하면 책과 노오트 위에서의 空理空論이 되기 쉬운 학문을 그야말로 쓸모있는 산 학문으로 實施하고 있는데 감탄하였다.

물론 약학교육을 전적으로 이와 같은 직업교육만으로 실시하므로써의 利害得失이 있을 것은 사실이지만 우선 實用性있는 약학교육을 하겠다는 試圖와 設備에 있어서는 이 학교가 세계의 으뜸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 학교의 교육을 하나의 모델로 취급하여 case study 를 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렬하게 느끼는 동시에 이와 같은 학교가 이른바 「手腦並用」의 實學精神의 發露가 아닌가 한다.

胡適박사가 生存時는 毀譽褒貶이 無常하였다지만 그가 뿌린 實學의 씨앗은 지금 이렇게 着床하여 발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그의 忌日인 2月 24日을 기념하고자 한다.

## —세계제일의 山藥學教育에 치중—